손학규 '범여권 신당' 참여 할까

신중식 의원 "참여 배제 못해"… 본인은 부인
일부선 "지지율 답보 극복위해 선택 할수도"

1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신년하례법회에 참석한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정동영 전 의장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여권 대선 예비후보였던 고건 전 총리의 '중도하차' 이후 한나라당 대권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 전 총리와 비슷한 중도 성향으로 범여권 인사들로부터 수차례 '러브콜'을 받기도 했던 그가 고 전 총리의 대선출마 포기 발표 직후 열린 자신의 '캠프 출정식'에서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겠다"고 외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손 전 지사가 '제3지대 정계개편'을 선두에서 이끌며 범여권과 한나라당 지지층 중 중도 성향을 끌어모아 지역·이념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정파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손 전 지사가 지지율 답보 상황을 타개하고 대선후보로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는 방편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고 전 총리를 지지했던 민주당 신중식 의원이 17일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범여권이 주축인) 신당에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언하면서 손 전 지사의 범여권행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손 전 지사의 여당행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간간이 새어 나왔다.

한 초선의원은 "손 전 지사가 굳이 왜 여당으로 가겠느냐"면서 "다만 진보성향의 손 전 지사가 현재의 2~3%대 지지율 답보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수를 생각할 것"이라고 말해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손 전 지사는 이 같은 관측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섰다. 손 전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들이 제가 통합의 정치를 이끌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은 고맙지만 저는 한나라당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탈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빼다 붙인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벽돌이냐, 나무짝이냐"면서 "(그보다는) 좋은 뜻을 가진 분들을 한나라당이 크게 안고, 또 한나라당이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한나라당을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 전 지사는 고 전 총리의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대선판도에서 호남이 '무주공산'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 "호남이 중요하다. 적극 끌어안도록 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 발전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고건파' 지역 국회의원들 입지 타격

'중도세력 통합' 중심 잃어
"맹목적 추종" 일부 비난도

고건 전 국무총리의 '대선 불출마' 선언 파장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친 고건 성향을 보여왔던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행보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호남 민심의 지지에도 불구, 중도포기를 선언한 고 전 총리에 대해 실망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친 고건 성향을 보였던 지역 의원들의 정치적 입지는 좁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동안 친 고건 성향을 나타냈던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은 민주당 신중식 의원(고흥·보성)을 중심으로 이낙연 의원(영광·함평), 최인기 의원(나주·화순),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여수 갑) 등이다.

고 전 총리의 경기고, 서울대 후배인 신중식 의원은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고건 대망론'을 역설했으며 민주당 입당 이후에도 한화갑 전 대표와 고건 전 총리와의 모임을 주선하는 등 사실상 '고건맨'으로 불리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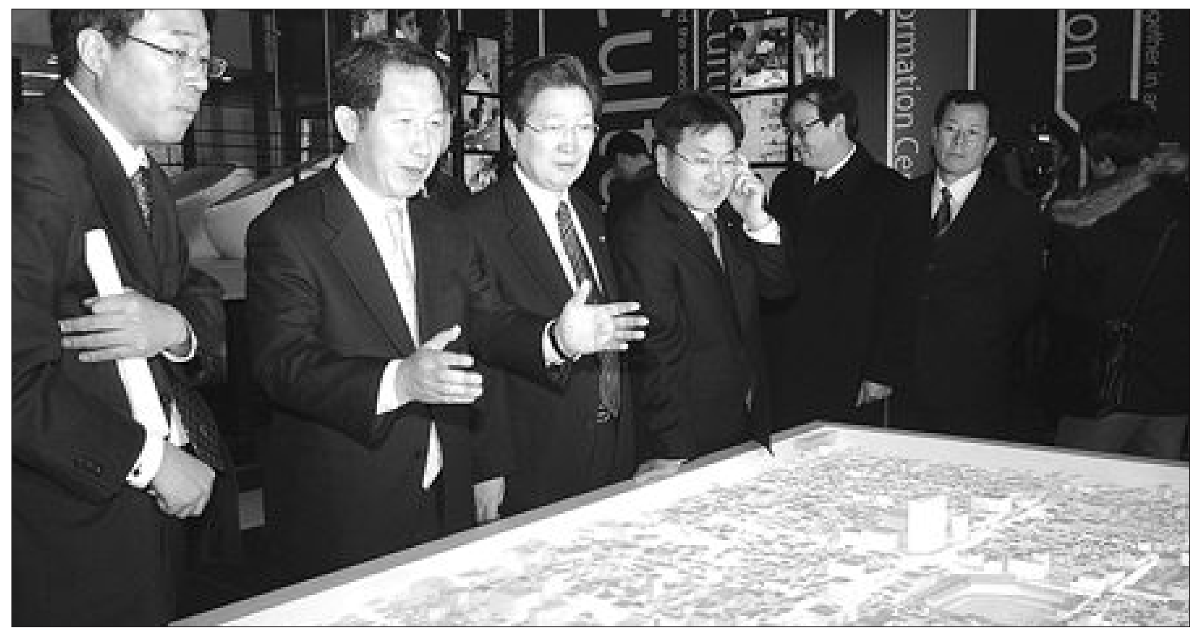
이낙연 의원도 정치부 기자 시절 및 원내 진출 이후 쌓은 인연 등을 바탕으로 고 전 총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 당내에서 눈총을 받기도 했다.

최인기 의원은 공무원 시절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고 전 총리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 민주당 내에서 신중식, 이낙연 의원 등과 함께 '친 고건 3인방'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여기에 김성곤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여당 내 일부 의원들과 함께 고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론을 주도하면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친 고건 성향 의원들이 고건 전 총리의 리더쉽이나 정치적 비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한 이후 범여권 주자로 자리매김한 고 전 총리를 일방적으로 따라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7일 광주를 방문한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광주시 동구 광산동 옛 전남도청에 설치된 아시아 문화전당 홍보관을 찾아 문화중심도시 사업 진척상황을 듣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고건 지지층 되돌아올 것"

김근태 의장 광주서 '反한나라 결집' 호소

고건 전 총리의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호남민심의 향배가 주목되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17일 광주를 찾았다.

김 의장은 이날 한나라당을 '원조 무능세력'으로 규정하고, '반 한나라당' 결집을 위한 대통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시아문화전당 홍보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광주에 오니 집 나갔다 돌아오는 느낌이 들고 용기를 얻고 돌아간다"고 소감을 밝힌 뒤 고 전 총리의 불출마에 대해선 "상당한 충격이며 반 한나라당 전선과 대통합 전력에 상당한 손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고건 중도포기' 이후 호남 민심의 향배에 대해 "고건 지지층이 한나라당 대선주자로 이동했다는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궁극적으로 현명한 선택을 통해 (여권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고 전 총리에 대한 (호남의) 지지는 같은 동향이라서가 아니라 반 한나라당 전선을 효과적으로 꾸리는데 지도자 역할을 해달라는 기대였다"며 "이를 바르게 계승하는 대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다만 그는 고건 불출마 이후 대선주자 득실 전망과 관련, '김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 중 누구에게 득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이순신 장관의 말(若無湖南 是無國家·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을 오늘 시대에 맞게 번역하면 호남이 없으면 오늘의 민주주의는 없다는 것"이라며 "대통합 신당은 한나라당에 정권을 넘길 수 없다는 결의와 판단을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與 일부-민주-국중당 교섭단체 만들자"

민주 이낙연 의원 주장

정치권 물밑에서 진행되던 열린우리당 탈당 의원들과 민주당, 국민중심당이 통합신당 창당에 앞서 교섭단체를 만들자는 방안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계개편 대토론회에서 중도개혁세력 대통합의 수순으로 우선 열린우리당 선도탈당 그룹과 민주당 의원 전원, 국민중심당 의원들이 신당추진위원회 성격의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중도개혁 세력의 대통합과 관련 각 당의 일정이 늦어질 경우, 민주세력 분열의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일단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 점차 규모와 세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